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백 경 임*

서 동 인**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요약 및 제언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부터 얻는 지지는 사회·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친구는 가족원을 제외하고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원효중, 1993) 전 인생주기에 걸친 친구관계의 본질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청년기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는 더욱 중요성을 띠는데, 이는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보내고, 친구에게 더욱 동조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사회적 능력이 배양되고 동시에 심리적 지지를

얻기(Lloyd, 1985 ; Brown, Eicher & Petrie, 1896 ; Ginsberg, Gottman & Parker, 1986)때문이다. 또한 다른 시기에 만난 친구보다 청년기 동안에 사귄 친구관계에서 제일 친밀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도 다른 시기보다 특히 청년기라는 시기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 한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양상을 파악하려는 시도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친구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밝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의 문화권에서 친구관계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농도높은 애착관계인(Hartup, 1983) 우정관계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이나 보통으로 친한 친구 및 그 이외의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 성심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 이 논문은 92학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개인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인 정보로서, 즉 친구관계가 원만하느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태도가 긍정적이냐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친구관계의 친밀도란 구체적인 특정 친구와 어느 정도의 친밀도 수준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친구관계의 친밀도는 친구 관계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기대로 여아는 의존적이고 상냥하게 사회화되어 남아보다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 친구에게 더욱 기대하고 친한 친구와 아주 애착된 상태를 보인다(Claes, 1992). 또한 남아의 사춘기가 여아보다 늦게 시작되는 사실은 친구관계의 발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청년기 단계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발달적 혼란을 겪는 청년기 전기와 중기에서는 또래집단이 지지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래집단과의 지향과 동조도 청년기 중기에 가장 높으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이 때에 절정에 이른다(Coleman, 1974, 1980; Douvan & Adelson, 1966). 그러나 개인적 정체감이 강화되는 청년기 후기로 진입하면서 또래집단의 필요성은 감소되고 동조에 대한 또래집단의 압력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다(Brown, Eicher & Petrie, 1980).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알아보고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의 수

준 및 영향요인 그리고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 및 상담 그리고 교육에 참고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 친구는 또래집단 및 우정관계 그리고 친한 사이는 아니나 친구라고 지칭되는 관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래집단은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성원으로 구성되어 우정관계보다는 상호교류의 깊이가 얕은 집단이다(Hartup, 1983). 우정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로 높은 수준의 애착이 따르고 애정과 호감에 근거한 동반감과 상호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Damon, 1985)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두 범위뿐 아니라 그 이외의 청소년들이 친구라고 자칭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친구관계란 위에서 언급한 광범위한 친구관계에서 원만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 친밀도는 현재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친밀도의 수준을 지칭한다. Gottman(1986)은 우정관계의 친밀도를 상호적인 애정*affection*의 표현, 포함*inclusion*, 영향력*control*의 주고 받음, 환상의 공유*shared fantasy*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인 애정 표현의 차원을 선정하였다. 이 애정 표현의 차원은 상호간의 심리적 지지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 좋아하는 감정, 속마음과 비밀을 서로 표현하는 정도, 상호간의 감정이입의 정도를 포함한다.

2.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아는 친구에게 더욱 기대하고(Berndt, 1981; Begelow and Lagaipa, 1975), 의사소통, 신뢰, 감정이입, 자기노출 및 공유면에서 남아보다 더욱 투자한다(Claes, 1992). 이렇게 여아가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더욱 가치를 두는 것은 의존적이고 상냥하고 사교적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아는 여아와 비교하여 청년기 중기까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보다는 또래집단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의 발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우기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은 단계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 초기와 중기는 아직 자아정체감이 강화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지지적 관계를 제공하는 또래집단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또래집단의 동조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Constanzo & Shaw, 1966). 그러나 청년기 후기에서는 개인적 정체감이 강화되면서 또래집단의 필요성은 감소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발달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Sullivan의 이론에 의하면 청년기 앞단계 *preadolescence*에서 단짝 친구와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등장한다. 단짝 친구와의 관계는 아동기의 또래집단과의 관계와는 크게 달라 친밀하고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간에 거부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는 매우 깊은 관계이다. 이러한 친밀한 단짝 친구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정관계에 대한 의미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자세 및 행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보다는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연령과 학년은 상관관계가 높으며, 청소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생활환경이 크게 차이가 있어 연령보다는 학년이 더 의미있는 변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친구관계가 원만해지는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 수준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이 증가하는가?

3. 청소년 친구관계의 영향요인

조사대상의 가족에 관한 변수로서는 청소년의 주관적인 가족의 경제상태,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개인적 속성에 관련된 변수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학교 성적 그리고 외모 및 유머감과 상냥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교사들의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도 관련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므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의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구성을 위하여 1993년 6월 강북과 강남의 4학교에서 남녀 중학생 200명과 남녀 고교생 200명 총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1993년 7월 5일에서 7월 1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강북의 K남중, 고교의 200명과 K여중, 고교의 200명으로 총 400명의 학생이다. 학교의 소재를 동일 지역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중고교생에 대한 대표성있는 표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만, 학교를 같은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이 친구관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 주는 장점에 갖기 때문이었다.

2.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친구관계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의 파악을 위한 문항들,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유지정도 및 친밀도의 척도, 조사대상자의 가족환경 및 개인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일반적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척도로, 그리고 현재 가장 친하다고 여기는 친구와 어느 정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은 '친밀도'의 척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척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ssidy와 Asher(199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5점 리커트 문항을 구성하였다. 400명을 대상으로한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15문항을 선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친구관계 척도의 구성요인의 파악과 문항의 선정을 위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표 1>에서 제시되듯이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Principal-Component 분석을 하여 고유치 *eigen value*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을 varimax rotation시킨 결과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4개 요인으로 전체 변량의 56.1%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15 문항중 '나는 친구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는다'의 문항은 제외되었다. 제 1요인은 친구사귀는 어려움, 2요인은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3요인은 친구를 사귀는 태도 그리고 4요인은 친구사이의 인기도에 관한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어려움을 적게 지각할수록, 친밀한 친구소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를 사귀는 태도가 적극적인 수록, 그리고 친구사이의 인기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정도가 좋은 것으로 가정한다. 친구사귀는 어려움 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친구사귀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나머지 3요인은 높은 점수일수록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가 높고, 친구를 사귀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친구사이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의 α 값은 4문항의 '친구사귀는 어려움'은 .67로, 4문항의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는 .66, 3문항의 '친구사귀는 태도'는 .67로 그리고 3문항의 '친구사이의 인기도'는 .58로 나타났다.

2) 친밀도의 척도

Gottman(1986)의 우정관계 척도 *friendship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구성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를 요인 분석하여 가장 많은 변량을 설

〈표 1〉

전반적인 친구관계 척도 문항에 대한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 1 친구를 사귀는 어려움	요인 2 친밀한 친구 소유정도	요인 3 친구를 사귀는 태도	요인 4 친구 사이의 인기도	공유치 (h ²)
1. 나는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있어 슬프거나 괴로울 때가 있다.	.79	-.05	-.07	.04	.63
2. 나는 친구가 없어 외로울 때가 있다.	.69	.12	.20	.15	.55
3.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68	.27	.11	-.00	.54
4.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렵다.	.49	.06	.26	.40	.48
5. 나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	.19	.78	.09	.09	.66
6. 나에게 자신의 속 마음을 털어 놓는 친구가 많다.	-.07	.75	.07	.01	.58
7. 내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 나를 생각해 주고 돕는 친구가 많다.	.23	.56	.10	.34	.49
8. 나는 공부에 관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친구가 많다.	.09	.54	.12	.21	.35
9.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04	.10	.77	.25	.66
10.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하고만 친구를 한다.	.24	.04	.73	-.12	.61
11. 나는 친구 사귀기에 적극적이다.	.02	.27	.71	.30	.67
12.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7	.07	.24	.71	.60
13. 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적이 많다.	-.09	.15	-.05	.69	.51
14.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다.	.24	.25	.17	.62	.53
고유치(eigen va)	4.03	1.49	1.28	1.07	
전체변량(%)	28.8	10.6	9.1	7.6	56.1

명하는 제1요인으로 상호적인 심리적 지지가 되는 애정표현의 차원을 선정하였다.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친밀도 척도(부록-3 참조)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83이다.

3) 자존감의 척도

‘나는 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한다’,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의 α 값은 .69로 나타났다.

(4) 기타 변수의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리라고 예측되는 변수들로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 가족의 경제상태와 학교 성적 그리고 외모에 대한 만족과 성격요인인 상냥성 및 유머감각을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측면을 측정하였다.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은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와 ‘부모님께서 친구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이다.

3.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총 400부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친구관계의 구조적인 측면 및 일반적인 성향은 빈도분

포, 백분율, 산술평균을, 전반적인 친구관계와 친밀도의 척도 구성요인 및 문항선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 양상의 차이는 T-검증, X^2 -검증, 친구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다단계 회귀분석을, 그리고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성 별	남 자	199(49.8)	부의 교육 수 준	국 졸	15(3.8)
	여 자	201(50.3)		중 졸	55(13.8)
연 령				고 졸	204(51.0)
	11~12세	49(12.3)		전문대졸	8(2.0)
	13~14세	158(39.6)	대의교육 수 준	대 졸	86(21.5)
	15~16세	154(38.6)		대학원졸	15(3.8)
	17~18세	39(9.8)			
학 년	중 1	100(25.0)	부의 연령	34~40세	43(10.8)
	중 2	101(25.3)		41~45세	145(36.3)
	고 1	98(24.5)		46~50세	134(33.5)
	고 2	101(25.3)		51~55세	44(11.0)
				56세 이상	8(2.0)
형제수	독 자	15(3.8)	모의 연령	31~35세	22(5.5)
	2 명	238(59.5)		36~40세	131(32.8)
	3 명	93(23.3)		41~45세	146(36.5)
	4 명	25(6.3)		46~50세	57(14.2)
	5명이상	22(1.8)		51~60세	18(4.5)
형제서열	첫 째	167(41.8)	학교성적	잘하는편	118(29.5)
	둘째이하	227(56.8)		보통이다	179(44.8)
가족의 경제상태	중간수준이하	36(9.1)		못하는 편	99(24.8)
	보통수준	284(71.0)			
	중간수준이상	78(19.6)			

* 무응답을 포함하여 %를 분석하였으므로 때로는 100%미만이 될 경우도 있다.

4.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 :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 친구관계의 구조

1) 단짝 친구의 소유여부

단짝 친구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상 383명중 2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위하여 X^2 검증을 한 결과 이 두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중학교의 남학생의 19.6%, 여학생의 10.3%, 고등학교의 남학생의 29.9%, 그리고 여학생의 21.7%가 단짝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친구관계망의 크기

친한 친구, 보통으로 친한 친구,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의 소유정도를 질문하였다. 친한 친구의 수는 없다가 7.9%, 1명이 6.4%, 2~3명이 32.5%, 4~5명이 29.7%, 6명 이상이 11.8%, 10명 이상이 11.8%로, 조사대상의 반 이상이 2~3명에서 4~5명으로 대답하였다.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수는 없다가 7.9%, 1~3명에 12.5%, 4~5명에 17.4%, 6~8명에 14.6%, 10명 이상에는 48.8%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의 수 보다는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하지는 않으나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이 현재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서 부터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

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친구관계망의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이 3번째의 범주는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사실로 부터 조사대상의 친구라는 용어의 사용범위를 알 수 있다. 즉 친구라고 불리어지는 대상은 우정관계 및 또래집단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중학생에서 여학생($M=6.52$, $SD=8.52$)이 남학생($M=4.55$, $SD=3.45$)보다 친한 친구의 수가 유의한 차이로 많았으며($t=-2.12$, $p<.05$),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수도 여학생($M=13.76$, $SD=16.28$)이 남학생($M=9.98$, $SD=8.95$)보다 유의하게 많다($t=-2.01$, $p<.05$). 그러나 고등학생에서는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경향은 3범주 모두에서 나타난다.

남학생에서 친한 친구의 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고,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수는 고등학생에서($M=15.06$, $SD=22.91$) 중학생보다($M=9.98$, $SD=8.95$) 유의하게 많다($t=-2.04$, $p<.05$). 여학생에서는 중학생이($M=6.52$, $SD=8.52$) 고등학생보다($M=3.85$, $SD=2.48$) 친한 친구의 수가 유의하게 많으며($t=2.96$, $p<.01$),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수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학교 여학생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가장 큰 크기의 친한 친구관계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래집단으로 지내는 친구의 소유여부

중학교의 남학생의 37%, 여학생의 30.9% 그리고 고등학교의 남학생 32.9%, 여학생의 29.3%가 집단으로 지내는 친구관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친구관계의 군집적인 특성은 성별과 학년에

다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대상의 68.7%만이 집단으로 지내는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또래집단의 구성은 3명이 32.6%, 4~5명이 43.4%, 6~8명이 17.8%, 10명 이상이 4.3%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Dunphy (1963)의 짝패cliques와 대집단crowd의 분류중

짝패의 크기로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2. 연구문제 2 :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

1)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

〈표 3〉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

친구관계	남		중학생 여		t값
	M	SD	M	SD	
친구사귀는 어려움	11.59 (N=99)	3.21	9.90 (N=100)	3.33	3.63***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9.42 (N=100)	2.93	10.42 (N=101)	2.67	-2.54*
친구 사귀는 태도	8.24 (N=100)	2.19	8.22 (N=101)	2.39	.95
친구사이의 인기도	7.21 (N=100)	1.75	7.29 (N=100)	1.64	.73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13.02 (N=99)	2.47	12.91 (N=99)	2.56	.31
친밀도	23.46 (N=95)	6.20	28.08 (N=101)	5.09	-5.72***

	남		고등학교 여		
	M	SD	M	SD	
친구사귀는 어려움	10.53 (N=98)	3.18	9.58 (N=100)	2.91	2.19*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9.62 (N=97)	2.78	9.78 (N=100)	2.46	-.42
친구사귀는 태도	7.49 (N=98)	2.21	7.62 (N=100)	2.35	-.38
친구사이의 인기도	7.25 (N=98)	1.52	7.20 (N=99)	1.39	.21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12.54 (N=97)	2.45	12.35 (N=99)	2.22	.59
친밀도	25.23 (N=94)	5.26	26.87 (N=98)	5.15	-2.19*

* $p < .05$ ** $p < .01$ *** $p < .001$

* 전반적인 친구관계 척도의 각 요인은 문항수가 다르므로 4개 요인의 점수는 각기 다른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는 각 요인의 평균의 합이다.

본 연구의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척도는 〈표 1〉에서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평균점을 살펴보면 친구사귀는 어려움은 $M=3.196(SD=.939)$,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는 $M=3.041(SD=.799)$, 친구 사귀는 태도는 $M=3.319(SD=.966)$ 그리고 친구사이의 인기도는 $M=3.152(SD=.655)$ 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 수준인 ‘그저 그렇다’ 범주에 가깝다.

4개의 요인들중 친구를 사귀는 태도가 다른 요인보다 긍정적이고,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4개 요인의 평균의 합은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가 되는데, 4에서 20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조사대상의 친구관계의 전체점수는 4.92에서 19.17까지의 분포를 가지며 $M=12.709$, $SD=2.436$ 으로 4-8.00이 2.8%, 8.01-12.00이 35.8%, 12.01-14.00이 46%, 14이상이 28.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 척도는 7에서 35까지의 범위를 이루는데, 7-14이 2.8%, 15-21이 20.4%, 22-28이 41.7% 29이상이 35.1%이고 $M=25.959(SD=5.692)$ 이다.

먼저 대상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어려움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며($t=3.63$, $p<.001$),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다($t=2.54$, $p<.05$). 친구를 사귀는 적극적인 태도면에서나 친구사이의 인기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고등학생에서는 친구사귀는 어려움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t=2.19$, $p<.5$).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정도를 보이거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는 중학생($t=-5.72$, $p<.001$)과 고등학생($t=-2.19$, $P<.05$)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친구의 소유정도 및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는 남자보다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Berndt, 1981; Bigelow and Lagaipa, 1975) 여기에 투자하며, 남자보다 높은 친밀도 및 애착 수준을 보이는 선행연구(백화정, 1989; Claes, 1992) 및 친구와의 갈등에 관한 소재가 남자청소년(4.1%)보다 여자청소년(13.9%)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중수외, 1992)와 일관된 양상이라고 하겠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의 친구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이 학생들이 더 힘들게 지각할 수도 있겠고, 동시에 여학생들은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어 투자를 하므로 실제로는 적은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어렵게 지각할 수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표 4〉에서 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친구를 사귀는 어려움 요인에서 남고생이 남중생보다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고, ($t=2.05$, $p<.05$)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가 남중생 보다 남고생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t=-2.12$, $p<.05$) 응답했을 뿐 나머지 그밖의 여러 요인에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2) 청소년 친구관계의 영향요인

먼저 청소년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한 변수중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및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의 경향

〈표 4〉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t값
	M	SD	M	SD	
친구사귀는 어려움	14.00 (N=99)	3.81	12.90 (N=98)	3.66	2.05*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11.85 (N=100)	3.46	11.93 (N=97)	3.14	-.19
친구사귀는 태도	10.28 (N=100)	2.71	9.55 (N=98)	2.77	1.87
친구사이의 인기도	9.44 (N=100)	2.25	9.44 (N=98)	1.86	-.03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13.02 (N=99)	2.47	12.54 (N=97)	2.45	1.35
친밀도	23.46 (N=95)	6.20	25.23 (N=94)	5.26	-2.12*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t값
	M	SD	M	SD	
친구사귀는 어려움	12.34 (N=100)	3.88	12.00 (N=100)	3.36	.47*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12.74 (N=101)	3.20	12.11 (N=100)	2.91	1.46
친구사귀는 태도	10.34 (N=101)	3.08	9.64 (N=100)	2.95	1.66
친구사이의 인기도	9.61 (N=100)	2.01	9.32 (N=99)	1.70	1.08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12.56 (N=99)		12.35 (N=99)	2.22	1.65
친밀도	28.08 (N=101)	5.09	26.87 (N=98)	5.15	1.67

* $p < .05$

*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각 요인의 문항수는 다르므로 4개 요인의 점수는 각기 다른 범위를 갖는다. 반면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는 각 요인의 평균의 합이다.

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말 중요하다’ 72.8%, ‘중요한 편이다’ 17.5%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있다. 그러나 ‘그저 보

통이다’에 7.8%, ‘중요한 것은 아니다’에 1.8%가 응답하였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학생집단에서 여중생($M=4.74$, $SD=.64$)이 여고생($M=4.55$, SD

=.75)보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t=1.94, p=.05$).

친구관계에서 갈등이나 감정문제 또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6.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0%, ‘보통이다’ 16.0%, ‘약간 그런 편이다’ 36.3% 그리고 ‘정말 그렇다’ 30.3%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친구관계의 갈등문제적 관점은 중고교생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다(중학생에서는 $t=-3.16, p<.01$, 고등학생에서는 $t=2.57, p<.05$).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관계에 있어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남중생: $M=3.36, SD=1.36$, 여중생: $M=3.91, SD=1.09$, 남고생: $M=3.63, SD=1.12$, 여고생: $M=4.03, SD=1.02$).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가 가족변수, 조사대상의 개인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남학생의 친구관계에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전반적인 친구관계		친밀도		
	<i>b</i>	β	<i>b</i>	β	
남학생의 유머감각	.588***	.270	상냥성	1.051**	.210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태도	.254**	.171	경제상태	1.926**	.202
가족의 경제상태	.680*	.168	유머감각	.917*	.179
남학생의 외모	.365*	.153	학년	.804*	.156
상수	5.588**			10.058***	
R ²	.178***			.184***	
N	186			184	

* $p<.05$ ** $p<.01$ *** $p<.001$

남학생의 전반적인 친구관계는 <표 5>에서 나타나듯이 10개의 독립변수 중학년,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문제적 관점,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학교성적 및 성격요인인 상냥성의 6개 변수가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남학생의 유머감각($\beta=.270, p=.0001$)이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변량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beta=.171, p=.0121$), 가족의 경제상태($\beta=.168, p=.0142$), 남학생의 외모($\beta=.153, p=.0251$)의 순이다. 남학생청소년이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외모에 대한 남학생의 만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남학생의 현재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는 상냥성($\beta = .210, p = .0037$), 가족의 경제상태($\beta = .202, p = .0044$), 유머감각($\beta = .179, p = .0105$) 그리고 학년($\beta = .156, p = .0239$)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남학생이 상냥할수록,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학생의 전반적인 친구관계는 <표 6>에서 여학생의 유머감각,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여학생의 외모 및 학교성적 그리고 여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이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상태,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여학생의 학년 및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냥성은 전반적인 친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학생의 유머감각이 있을수록($\beta = .307, p = .0000$),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중요하다고 교사가 언급할수록($\beta = .231, p = .0004$), 여학생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beta = .182, p = .0049$), 여학생의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beta = .147, p = .0243$)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갈등 발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beta = .134, p = .374$) 전반적인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표 6> 여학생의 친구관계에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전반적인 친구관계		친밀도	
	<i>b</i>	β	<i>b</i>	β
여학생의 유머감각	.672***	.307	유머감각	1.200***
청소년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493***	.231	친구의 중요도	1.502**
여학생의 외모	.445**	.182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736*
여학생의 학교성적	.396*	.147	가족의 경제상태	1.240*
여학생의 친구관계의 갈등론적 관점	-.303*	-.134		.141
상수	7.257***			9.879***
R ²	.246***			.185***
N	193			19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여학생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는 여학생의 유머감각이 있을수록($\beta = .259, p = .0001$),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beta = .208, p = .0021$),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beta = .162, p = .0161$),

그리고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beta = .141, p = .0354$) 여학생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즉 갈등이란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존재

하며 따라서 갈등의 근원적인 해소보다는 갈등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시각을 갖느냐의 여부가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이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가질수록 친구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전설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따라서 친구관계가 긍정적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예측과는 다르게 반대의 방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인 관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구관계에 지향하는 것을 억제하는가? 혹은 친구관계가 현재 어렵게 지각됨에 따라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변담을 통한 연

구로서 밝혀져야 하겠다.

3) 청소년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

청년기의 친구관계는 그 구조와 규범을 불문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심리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Lloyd, 1985; Brown, Eicher & Petri, 1986; Ginsberg, Gottman & Parker, 1986). 이제, 앞에서 밝혀진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정도 및 친밀도와 사회·심리 적응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인 자존감(Buhrmester, 1990)과 상관관계를 밝혀봄으로써 친구관계가 갖는 기능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

<표 7>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와 자존감과의 상관관계

친구관계	자존감			
	남중생	남고생	여중생	여고생
전반적인 친구관계				
친구사귀는 어려움	.373***	.335***	.485***	.432***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281*	.246*	.311**	.248*
친구사귀는 태도	.494***	.076	.181*	.415***
친구사이의 인기도	.449***	.250*	.344***	.320**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561*** (N=98)	.297** (N=97)	.448*** (N=101)	.511*** (N=100)
친밀도	.316*** (N=94)	.066 (N=93)	.237** (N=98)	.003 (N=98)

* $p < .05$ ** $p < .01$ *** $p < .001$

밀도는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심리발달에 미치는 기능적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친구관계와 자존감과 의 상관관계는 고등학생에서 중학생보다 그 상관

관계의 정도가 낮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 및 4개의 요인 모두에서 나타난다. 남중생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친구사귀는 태도 및 친구사이의 인기도 요인이 남고생에서는 상관의 정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특히 친구사귀는 태도는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는 남중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남고생의 경우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학생의 사회·심리발달에 미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고등학생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친구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는 남학생과 비교해 보면 그 상관의 정도가 학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전체점수와 자존감과의 관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는 남학생집단에서 처럼 여중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나, 여고생에서는 유의 수준에서 벗어났다.

이와 같이 여학생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친구관계의 기능적인 중요성이 학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남학생집단에서는 고등학생에서 그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위의 결과는 횡단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결과이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여성은 의존적이고 상냥하고 사교적으로 사회화되는 까닭에 인간관계에 집착을 하는 반면, 남성은 독립적이고 능력을 갖기를 기대되기 때문에 대학입시의 경쟁적인 준비가 더욱 더 심화되는 고등학생 시기에서는 친구관계가 사회·심리 적응에 미치는 기능적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

구라기 보다는 모두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긴다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은 고등학교 시기에서 다소 낮아지는 것일 뿐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이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의 구조를 살피고,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의 수준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동시에 친구관계의 영향요인 및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23%가 절친한 단짝 친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조사대상의 반 이상이 2~3명에서 4~5명의 친한 친구를 가지며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보통으로 친한 친구를 소유하고 있다. 여중생이 남중생보다 더 많은 친한 친구 및 보통으로 친한 친구를 가지며, 고등학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 남중생보다 남고생이 보통으로 친한 친구의 경우 더 많고, 여중생이 여고생보다 친한 친구의 수가 많았다. 네 집단 중 여중생이 가장 큰 크기의 친구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의 30% 이상이 또래집단을 소유하지 않고, 이러한 친구관계의 군집적인 특성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집단은 작배의 크기로 구성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척도는 친구사귀는 어려움,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친구 사귀는 태도, 친구사이의 인기도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친구 사귀는 태도가 다른 요인 보다 긍정

적이고 친밀한 친구소유 정도 요인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여중생이 남중생보다 친구 사귀는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나 친한 친구의 소유정도는 더 높다. 여고생도 남고생 보다는 친구사귀는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남고생이 남중생보다 친구사귀는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을 뿐 다른 요인들에서의 차이는 없다.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는 여중생이 남중생보다, 여고생이 남고생보다, 그리고, 남중생보다는 남고생에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 친구를 사귀는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친구의 소유정도가 높고,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도 높다. 남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에서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음에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학생의 전반적인 친구관계는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할수록 높아진다. 남학생의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는 상향할수록,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학생의 전반적인 친구관계는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학생의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는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친구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친구관계에서 갈등의 발생을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은 건설적인 갈등관

리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밝히기 위한 면담에 의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친구관계가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기능적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여학생에서는 전반적인 친구관계의 기능적 중요성이 학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다. 여학생보다는 더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사회화되는 까닭으로 입시준비가 심화되는 생활환경에서 남고생에게 미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는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모두 중학교 시기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보인 반면, 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상담에 있어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특별한 친구 관계선에서 이루어지는 친밀도에 관한 정보가 함께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는데, 위에서 밝힌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친구관계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후기에서 청년기 초기까지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즉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의 변화과정을 살핀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앞으로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끝으로 앞으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변수들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의 변량을 크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y*을 포함시키는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전반적인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의 구성을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앞으로 이 척도를 세련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친밀도 척도는 질문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상호적인 애정표현의 차원만을 선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 척도사용이 요구된다. 그리하면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친밀함의 기능적 내용이 파악될 수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3.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친밀도 척도

1. 이 친구는 그의 속마음을 나에게 솔직히 이야기 한다.
2. 이 친구는 자기의 비밀을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3. 나는 이 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
4. 나는 이 친구에게 나의 애정을 표현한다.
5. 이 친구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위로해 준다.
6.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한다고 표현한다.
7. 이 친구는 내가 좋을 때 좋아하고, 내가 슬플 때 자기도 슬퍼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본(1982),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 관한 연구. 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종, 김문조(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 구조. 삼성복지재단 주최 청소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 도중수 외(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백화정(1989), 친구지각에 관한 일 연구: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1992),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 10호, 5~17.
- 원효종, 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76~190.
- 한덕웅(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2(2), 169~191.
- _____(1986), 우정관계의 진전에 따른 행동적 사건의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3(1), 37~72.
- Adams, R. G.(1989),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Friendship of Older Adults. In R. G. Adams & R. Blieszner(Eds.), *Older Adult Friendship*.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igelow, B. J. & LaGaipa, J. 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 Brown, B., Eicher, S., & Petrie, S.(1986), The Importance of Peer Group("crowd") Affil-

- i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9, 73~96.
- Buhrmester, D.(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Cassi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laes, M. E.(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0~55.
- Coleman, J. C.(1974), *Relationship in Adolescence*. London : Routledge & Regan Paul.
- Constanzo, P. R.(1970), Conformity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 967~975.
- Damon, W.(1983),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 Y : W. W. Norton & Company, Inc.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 Y : Wiley.
- Dunphy, D. C.(1963), The Social Structure of Urban Adolescent Peer Groups. *Sociometry*, 26, 230~246.
- Ginsberg, D., Gottman, J. & Parker, J.(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 M. Gottman & J. G.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of Press.
- Hartup,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167~230. New York : Wiley.
- Lloyd, M. A.(1985), *Adolescence*. N. Y. : Harper & Low Publishers.
- Pombeni, M. L., Kirchner, E. & Palmonari, A. (1990), Identification with Peers as a Strategy to Muddle through the Troubles of the Adolescent Years. *Journal of Adolescence*, 13, 351~369.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sch, S. A.(1983), Review of Friendship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6, 266~276.
- _____ (1989), Early-Life Development and Adult Friendship. In R. G. Adams & R. Blieszner(Eds.), *Older Adult friendship*. Ca. : Sage Publications Inc.

부록-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남학생 집단)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학년	1.00															
출생서열	.08	1.00														
형제수	.12	.42***	1.00													
경제상태	-.10	-.02	.03	1.00												
부의 교육수준	.00	-.06	-.13*	.15*	1.00											
모의 교육수준	-.14*	-.09	.09	.10	.66***	1.00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09	-.16*	-.00	.07	.06	.19**	1.00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14*	.03	.14*	-.10	-.10	-.08	.05	1.00								
갈등론적 관점	-.00	.09	.05	.01	.11	.08	-.11	.07	1.00							
친구관계의 중요성	.05	-.13*	-.01	.01	.20**	.15*	.15*	.05	.02	1.00						
학교성적	-.07	.05	.05	.16*	.18**	.11	.04	.06	.16*	.04	1.00					
외모	-.02	.09	.08	.06	.04	.09	.06	-.01	-.02	-.00	.04	1.00				
유머감각	-.02	.02	.06	.11	.10	-.00	-.05	.03	.27***	.06	.08	.10	1.00			
상냥성	.10	.00	.07	.25***	-.02	-.05	.10	-.03	-.02	.05	.09	.22**	.26***	1.00		
전반적인 친구관계	-.03	.11	.00	.21**	.18**	.28***	.17**	-.02	.11	.13*	.14*	.20**	.30***	.25***	1.00	
취필도	.12	-.06	-.08	.27***	.17*	.18**	-.00	-.08	.11	.03	-.01	.14*	.26***	.30***	.43***	1.00

* p<.05

** p<.01

*** p<.001

부록-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여학생 집단)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학년	1.00															
출생서열	.01	1.00														
형제수	.14*	.26***	1.00													
경제상태	-.10	-.13*	.07	1.00												
부의 교육수준	.00	-.00	-.00	.35***	1.00											
모의 교육수준	-.03	.00	-.08	.36***	.67***	1.00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의 태도	-.11	-.00	-.09	.01	.10	-.01	1.00									
친구관계에 대한 교사의 태도	-.33***	-.13*	.03	.12	.10	.07	.08	1.00								
갈등론적 관점	.11	-.08	.05	-.05	-.00	-.02	-.04	.03	1.00							
친구관계의 중요성	-.06	.12	.04	-.07	.04	.09	.11	.13	-.01	1.00						
학교성적	.08	-.13*	-.04	.29***	.28***	.30***	.13*	-.10	-.12*	-.06	1.00					
외모	.05	.03	.01	.07	.09	.03	.19**	.05	.06	.01	.09	1.00				
유머감각	-.00	.04	.06	.12*	-.00	.10	.03	.01	-.03	.00	.10	.07	1.00			
상냥성	-.00	-.01	-.12*	.06	.14*	.15*	.13*	.10	.00	.00	.04	.31***	.24***	1.00		
전반적인 친구관계	-.19**	-.05	-.06	.22**	.15*	.15*	.12*	.24***	-.15*	.08	.17*	.23***	.36***	.20**	1.00	
친밀도	-.18**	-.00	.08	.17**	.11	.13*	.12	.24**	.00	.23***	.11	.15*	.27***	.18**	.34***	1.00

* $p < .05$

** p<.01

*** $p < .001$